

## 화용 전략에 따른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피동 표현 이해 연구

김성은 · 강해 사마와디\*

### Abstract

**Kim Sungeun, Kunghae Samawadee.** 2016. 6. 30. **A Study on Thai-Speaking Korean Learners' Understanding about Korean Passive Based on Pragmatic strategies.** *Bilingual Research* 63, 23-69. Korean passive has more pragmatic strategies than that of the Thai language. function of passive expressions, thus, have the effect of politeness since the speaker delivers his/her opinion indirectly. In this paper, I introduce how differently Thai-speaking Korean learners and native Korean speakers perceive pragmatic strategies in Korean passive. In order to do so, I compare the shares of passive and non-passive expressions in the language use of the two groups and analyze the difference in each pragmatic strategy. According to the study, Thai-speaking Korean learners used much fewer passive expressions, which means they are not aware of politeness that Korean passive carries. Also, among Thai-speaking Korean learners, even those who used passive expressions as well did not fully understand pragmatic strategies. In other words, most Thai-speaking Korean learners recognized passive expressions merely as situational description, not as a politeness mark, and attempted to replace passive expressions with other grammatical devices or to translate them into their first language. In many occasions, Thai-speaking Korean learners show the tendency of heavily depending on specific sentence patterns or merely choosing the honorific pre-final ending, '-si-.' This tendency is highly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ir first language of the learners, which does not have pragmatic strategies in its passive expressions and conveys formality by adjusting tones or attitude, and by many Korean language textbooks which do not fully explain the pragmatic strategies of passive expressions.

---

\* 제1저자: 김성은, 교신저자: 강해 사마와디

**【Key words】** indirect speech act(간접 화행), pragmatic strategies of passive expression(피동 표현의 화용 전략), Thai-speaking Korean learners(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passive pragmatic understanding competence(피동 표현의 이해 능력), politeness(공손성)

## I. 서론

### 1. 연구 목적

지금까지의 언어 교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은 어휘, 발음, 문법 등의 교수-학습이었다. 특히 문법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제2언어 교수에서 문법적 오류가 없는 정확한 사용에 초점을 두고 행해져 왔다. 그러나 Thomas(1983)(Locastro 2012: 119에서 재인용)는 언어적 오류는 단지 언어습득 단계에서 미숙한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지만,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화용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화자의 의도된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화용적 오류는 의사소통 맥락에서 부적절한 발화나 이해를 촉발시켜 비모어 화자가 무례하거나 불친절하다는 개인적 잘못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2언어를 배우는 화자의 언어적 오류보다 때로는 화용적 오류가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며 화용 표현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드러내게 되었다.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 국가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화용적 오류는 공손성과 관련된 것이 많다. 아무리 문법적으로 완벽하더라도 한국인, 한국 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황에 적절한 발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의 두 예문을 살펴보자.

- (1) 가. 어떻게 하다 보니 풀렸어요.  
나. 이거 제가 풀었어요.

(1나)의 예문과 비교해 보면 (1가)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청자에게 화자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피동문을 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이해영(1996)은 피동문의 기능을 ‘부담 줄이기’와 관련하여 언급하면서 화자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신분, 지위, 연령 등의 힘이 대등하지 않거나 서로 친숙하지 않을 경우, ‘겸손’의 미덕이 작용하여 행위의 주체가 화자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피동문을 사용하여 청자의 시점에서부터 자신을 숨겨서 표현하고자 한다. 이처럼 피동 표현의 기능이 화자가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때문에 공손성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동 표현의 화용적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발화를 생산할 경우 의사소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이 예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피동 표현이 한국어와 같은 공손성을 표현하는 화용적 기능을 가지지 않은 태국어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한국어 피동 표현의 공손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에 피동 표현의 화용적 기능을 세부 분류하고 그에 따른 태국인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지금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피동에 관한 연구로는 크게 피동 교육 방안을 다룬 연구와 언어권별로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습득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어학에서의 피동 표현에 관한 논의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여 전형적인 문항을 학습하고 피동사의 형태 의미 구문론적 정보를 주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논의(정수민, 2011; 황주하, 2011; 양정숙, 2013) 등)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중국인 학습자나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많이 나타나는 피동표현의 오류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인 한국어의 피동 표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논의(이효숙, 2004; 김진영, 2011; 사마와디, 2011; 광옥, 2012 등)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중에 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사마와디(2011)가 있다. 사마와디(2011)는 한국어·태국어 피동 표현의 대조 분석을 통해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과제물 통해 학습자의 피동문 구성에 있어 태국어와 한국어의 언어간 전이에 따른 오류가 많음을 밝혔고, 이와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피동 습득에 관한 연구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정수민(2011)과 일본인 학습자들 대상으로 한 고기영(2015)이 있다. 정수민(2011)에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말하기 테스트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과제 유형은 한국어 피동 표현 습득의 숙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고기영(2015)은 한국어의 피동을 문법적, 의미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일본어와 대조하여 일본인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피동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너무 문법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화용적 적절성에 대한 교육적 관점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점에서 이현진(2002), 김서형(2014)은 눈여겨 볼만 하다. 이현진(2002)에서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법 중심적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의사소통적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문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 의미 중심적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피동 표현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김서형(2014)도 주목할 만하다. 김서형(2014)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균형말뭉치에서 ‘-게 되다’의 실제 용법을 조사하여 실제 사용 실태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제대로 반

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이 두 연구는 학습자들의 실제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피동 표현에 접근했다는 점이 다른 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 피동 표현에 대한 연구가 주로 문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과 중국인 학습자나 일본인 학습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급이나 고급학습자의 고민은 문법적 정확성보다 화용적 적절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피동 표현의 화용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 3. 피동 표현을 통한 화용적 전략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 전달 및 교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인 관계 강화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특히 화용론의 관점에서는 후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다음의 예문을 보자.

2) 아직 요금 납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문 2)에서는 요금 납부를 하지 않은 청자가 아니라 요금 납부에 시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동 표현은 청자의 시점을 배제하고자 하는 화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청자는 예문 2)의 ‘아직 요금 납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와 같은 화자의 발화에서 ‘요금 미납되었다’는 명제적 사실과 함께 ‘요금 미납되었으니 빨리 요금을 납부하라’는 간접적인 요청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접성은 청자, 즉 손님에 대한 공손법(politeness)에 기인한다. 청자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실패한다면 화자는 자신이 의도했던 발화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Lakoff(1973), Leech(1983, 2002)는 이러한 공손법의 원리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있어 보다 완곡한 표현을 선택하여 청자가 안게 될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청자의 자율적 체면을 존중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것은 Brown과 Levinson(1987)의 '체면 유지 전략(face-saving strategy)'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언어적 공손성은 타인과의 의사 소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면 위협 행위를 완화시키는 의도적이고 의례적인 언어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공손 표현은 청자가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줄여 주고 청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범위를 넓혀 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윤정화, 2014:63). 한국어의 피동 표현은 청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피하고 청자와 서로의 배경 정보에 바탕을 두고 화자의 관점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언급함으로써 언어적 공손(linguistic politeness)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영(1996)에서는 한국어의 피동 표현이 청자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청자를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으로 청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화자는 자신을 행위의 부각시키지 않고자 하는데 이러한 전략에는 '누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달하는 피동 표현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 3) 이 문제 해결됐어.
- 4) 이 거울 왜 깨졌지?

예문 3)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가 해결됐다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이때 피동 표현은 문제를 해결한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역할을 한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부각시키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Leech(1983:132)에서 제시한 공손 원리<sup>1)</sup>의 하위 격률 중 겸손의 격률(Modesty Maxim)로서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라는 전략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의 예문에서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거울이 깨졌다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전달하고 있다. 이때 피동 표현은 누가 거울을 깬지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역할을 한다. 화자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대화 상황에서 화자·청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Lakoff (1973)는 대화 상황에서 화자·청자 간의 예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의를 지킴으로써 대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예문 8)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Leech(1983)의 대화 요령의 격률(Tact maxim)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1) Leech(1983:132)에서 제시한 공손의 원리에 따른 6개의 하위 격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p>가. 대화 요령의 격률(Tact Maxim)</p> <p>㉠ 상대방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라</p> <p>㉡ 상대방에게 이익을 최대화하라</p>       | <p>마. 동의의 격률(Agreement Maxim)</p> <p>㉠ 상대방과 자신간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라.</p> <p>㉡ 상대방과 자신간의 일체감을 최대화하라.</p> |
| <p>나.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p> <p>㉠ 자신에게 이익을 최소화하라.</p> <p>㉡ 자신에게 부담을 최대화하라.</p>    | <p>바. 공감의 격률(Sympathy Maxim)</p> <p>㉠ 상대방과 자신간의 반감을 최소화하라.</p> <p>㉡ 상대방과 자신간의 공감을 최대화하라.</p>    |
| <p>다. 칭찬의 격률(Approbation Maxim)</p> <p>㉠ 상대방에게 비방을 최소화하라.</p> <p>㉡ 상대방에게 칭찬을 최대화하라.</p> |   |
| <p>라. 겸손의 격률(Modesty Maxim)</p> <p>㉠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라.</p> <p>㉡ 자신에 대한 비방을 최대화하라.</p>   |   |

김선희(1996)에서는 화자·청자가 신분, 지위, 연령 등의 힘이 대등하지 않거나 화자·청자가 서로 친숙하지 않을 경우 주관을 배제한 피동성 표현으로 대화 상대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자 함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5)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문 5)의 ‘보이다’는 전형적인 접사 ‘-이-’에 의한 피동사로서 주어를 피동자로 만듦으로써 화자의 능동적인 주관을 배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 윤현애(2011)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신의 주장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면 자신과 상대방 간의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이것은 공손성을 나타내면서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기능이라고 정리하였다.

6) 지갑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돼요.

예문 6)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자 하는 예이다. 이때 피동 표현은 자신의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문 5)와 6)에서 화자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전략은 Leech(2002)<sup>2)</sup>의 자신

---

2) Leech(2002)에서는 공손 원리를 수정한 GSP(a Grand Strategy of Politeness)를 제안하였는데 상대방과 관련된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자신과 관련된 것에 낮은 가치를 두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관용과 요령(Generosity/Tact)

- ① 관용(Generosity): 상대방의 욕구에 높은 가치를 두라.
- ② 요령(Tact): 자신의 욕구에 낮은 가치를 두라.

2. 칭찬과 겸손(Approbation/Modesty)

- ① 칭찬(Approbation): 상대방의 인격에 높은 가치를 두라.
- ② 겸손(Modesty): 자신의 인격을 낮추라.



의 견해에 낮은 가치를 두라는 동의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현애(2011)에서는 한국어의 피동표현이 청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략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화자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특히 위계질서가 강한 상황이나 자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피행위자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방의 초점을 돌림으로써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7)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됐어요.

8) 앞으로 동아리 분위기를 해치는 글은 바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문 7)은 피동 표현 ‘-게 되다’를 사용하여 출장을 가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초점을 돌리고 있다. 이때 피동 표현은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문 8)에서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삭제하는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때도 피동 표현은 자신의 의도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 의존적인 의미를 표현하며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여 청자가 화자에게 가질 수 있는 반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현진(2002)에서도 이처럼 화자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

---

### 3. 동의 (Agreement)

상대방의 견해에 높은 가치를 두라. / 자신의 견해에 낮은 가치를 두라.

### 4. 공감이나 관심(Sympathy or concern)

상대방의 감정에 높은 가치를 두라. / 자신의 감정에 낮은 가치를 두라.

### 5. 의무(Obligation)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의무에 높은 가치를 두라. /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의무에 낮은 가치를 두라.

면서 의도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 의존적인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Leech(1983)의 동의와 공감 격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차를 최소화하거나 상대방의 반감을 최소화함으로써 청자를 배려하는 원리로서 작용한다.

또한 관용적으로 피동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9) 김 대리 되십니까?

10)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선희(1996:19)에서는 이를 피동성 표현에 의한 ‘거리 만들기’라고 보았다. 9)와 같은 표현은 낯선 사람과의 대면에서 주로 쓰이는 인사인데, 화·청자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공손 책략으로서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되다’를 연결하여 피동성 표현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한국어의 피동 표현이 언어적 공손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임을 살펴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피동 표현이 단순한 상황 설명을 통한 정보 전달의 기능과는 별도로 화자가 의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화용적 전략 중 하나로서 보고 상술한 국내외 연구들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공손성을 드러내는 피동 표현의 화용적 전략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 1. 자신의 의도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전략

자신의 의도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 의존적인 의미를 표현하며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여 청자가 화자에게 가질 수 있는 반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전략은 화자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

화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낮추어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겸손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대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자와의 충돌이나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청자 존중 전략이다.

4.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전략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의 주장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면 자신과 상대방 간의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자신의 견해에 낮은 가치를 두어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전략이다.

5.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대방과 거리를 만드는 전략

낯선 사람과의 대면에서 화-청자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공손 전략으로 ‘되다’를 연결하여 표현한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피동 표현의 공손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피동 표현의 화용적 기능을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그 기능에 따른 인식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피동 표현의 공손성에 대한 태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

자와 한국인 모어화자의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태국인 중·고급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화자의 피동 표현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화용적 전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어 피동 표현의 화용적 의미를 이해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피동 표현의 화용적 의미는 먼저 한국어 피동 표현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습득한 이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언어권은 태국어 모어 화자이다. 화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피동 표현은 자신의 부담 또는 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데에 비해 태국인의 경우 피동 표현보다는 능동 표현을 선호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처럼 피동 표현으로 공손성을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태국어를 모국어로 한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피동 표현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피동의 화용적 기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 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참여자 정보

모국어	한국어	태국어
참여자 수(명)	40명	40명
숙달도	모어 화자	TOPIK 3급 이상
연령대	20-50대	20-30대

본 연구에서는 피동 표현의 화용적 기능을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비교하기 위해 태국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를 전공하는 대학교 4학년 학생 30명과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태국인 10명을 포함하여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이들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3급에서 6급을 취득하여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교 집단으로 20-50대의 대학원생 및 직장인으로 구성된 한국인 모어 화자 40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어 모어 화자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를 통해 문항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실험에 쓰일 설문지를 최종 구성하였다. 본 실험은 2015년 8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국인 모어화자 40명,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4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여 이루어졌다. 본 실험 실시 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의 인식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자료 수집 도구

본 연구에서는 담화 완성형 과제(DCT)를 통해 모국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피동 표현에 대한 공손성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Brown & Levinson(1987)에서 공손표현을 택할 때 작용하는 변수로 권력(Power),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부담의 정도(imposition)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sup>3)</sup> 또한 공손성은 상대방과의 관계뿐만 아니

---

3) 전해영(2004:85)은 이러한 변수들이 공손표현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이

라 상황이 일어나는 장소, 즉 격식적인 장면인가 비격식적 장면인가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격식성도 상황 설정에 포함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설정한 상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담화 완성형 설문지의 화용 전략별 상황

문항	상황	피동 표현	화용적 전략	힘의 우위	사회적 거리	부담의 정도
1	학교 선배에게 약속을 미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함	-게 되다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기	P+	D-	+
2	친한 후배가 부탁한 것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림	되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P-	D-	-
3	수업시간에 발표한 팀에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 지적하기	되다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P=	D+	+
4	테니스 강습 선생님에게 강습 요일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함	-게 되다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기	P+	D+	+
5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본인인지 확인함	되다	거리 만들기	P=	D+	+
6	친하지 않은 후배들에게 깨진 거울 상황에 대해 물어봄	-어/아지다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P-	D+	+
7	병원에 전화하여 예약을 취소하고 스케줄 변경에 대해 상의함	이,히,리,기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기	P-	D+	-
8	교수님께 조교를 추천함	되다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P+	D+	+
9	동아리 회장으로서 광고 글 삭제에 대해 공지함	되다, 당하다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P-	D-	-

아니라 여러 가지 공손표현 중에서 더 적절한 형태를 선택할 때도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10	학과 스터디에서 선배가 준비를 잘 했다고 칭찬한 것에 대해 답함	되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P+	D-	-
11	친구에게 자신이 소개한 영어 통역 아르바이트생이 당일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함	-게 되다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기	P=	D-	-
12	상사에게 프로젝트 진행의 어려움을 알림	이,히,리,기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P+	D+	+
13	단골 손님에게 구매한 상품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함	되다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P+	D+	+
14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학교 선생님께 아버지를 소개함	되다	거리 만들기	P+	D+	-
15	교수님으로부터 학회 준비가 잘 되었다는 칭찬을 받고 거기에 대해 답변함	-어/어지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P+	D+	-

담화 완성형 과제는 다지 선다형으로 작성하여 상황 설명을 제시한 후,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발화를 보기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보기는 모두 4개를 제시하였고 어휘적, 통사적, 파생적 피동 표현이 모두 포함 되도록 하였다.<sup>4)</sup> 피동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에는 능동 표현 및 화자의 의지가 들어간 표현을 넣어 피동 표현의 간접성과 차별성을 두도록 하였다. 그 중 ④번은 ‘적절한 답이 없음’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답을 모를 경우 임의로 답을 선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4)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문법에 포함되는 피동 표현의 형식은 어휘적 피동, 통사적 피동, 파생적 피동이 있다. 어휘적 피동이란 피동의 의미를 지닌 동사 ‘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 통사적 피동에는 ‘-어/어지다’형과 ‘-게 되다’형의 2가지가 있는데 ‘-어/어지다’형은 보조동사 ‘지다’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며 ‘-게 되다’형은 보조동사 ‘되다’에 의해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파생적 피동이란 피동파생접사 ‘이, 히, 리, 기’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

답을 선택한 이유도 쓰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실험 참여자들이 피동 표현의 공손성에 대해 알고 답을 선택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피동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 이유를 각각 화용 전략 인식, 의미 기능 인식, 좋다/적당하다, 그 외 기타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sup>5)</sup> 담화 완성형 과제 설문지의 예는 다음과 같다.

<DCT 설문지의 예시>

<p><b>【상황 1】</b> 당신은 오랜만에 만나는 학교 선배와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출장을 가야 해서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p> <p>① 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배요.</p> <p>② 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배요.</p> <p>③ 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배요.</p> <p>④ 적절한 답이 없음.</p> <p>→ 위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p>
---

### III. 피동 표현의 공손성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문제 1. 피동 표현의 공손성에 대한 태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5) 화용 전략 인식으로 분류된 이유들은 배치된 각 전략들에 대해 언급하거나 ‘공손함’, ‘정중함/예의바름’ 등으로 응답 이유를 밝힌 것이었고, 의미 기능 인식으로 분류한 것은 피동의 객관적 정보 전달 기능, 상황 설명 등으로 언급한 경우, 그리고 단순히 가장 자연스럽다, 좋다, 적당하다로 이유를 쓴 경우는 좋다/적당하다로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그 외 다른 문법 표현들을 언급한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의 피동 표현이 가지고 있는 공손성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Thai Korean Learners, 이하 TKL)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인 모어 화자(Korean native speakers, 이하 KNS) 집단과 비교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문항 1부터 문항 15에 걸쳐 피동 표현 선택과 피동 이외 보기의 선택 비율을 비교하여 두 집단 간 피동 표현의 이해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피동 인식 비교

문항	집단	설문문항선택지		$\chi^2$	자유도	유의확률 (p)
		피동 이외	피동			
1	KNS	4명 (10%)	36명 (90%)	13.730	1	.000
	TKL	19명 (47.5%)	21명 (52.5%)			
2	KNS	25명 (62.5%)	15명 (37.5%)	.464	1	.496
	TKL	22명 (55%)	18명 (45%)			
3	KNS	19명 (47.5%)	21명 (52.5%)	.050	1	.823
	TKL	20명 (50%)	20명 (50%)			
4	KNS	16명 (40%)	24명 (60%)	1.805	1	.179
	TKL	22명 (55%)	18명 (45%)			
5	KNS	22명 (55%)	18명 (45%)	5.698	1	.017
	TKL	32명 (80%)	8명 (20%)			

40 이중언어학 제63호(2016)

6	KNS	15명 (37.5%)	25명 (62.5%)	1.270	1	.260
	TKL	20명 (50%)	20명 (50%)			
7	KNS	7명 (17.5%)	33명 (82.5%)	9.448	1	.002
	TKL	20명 (50%)	20명 (50%)			
8	KNS	32명 (80%)	8명 (20%)	.075	1	.785
	TKL	31명 (77.5%)	9명 (22.5%)			
9	KNS	20명 (50%)	20명 (50%)	.808	1	.369
	TKL	24명 (60%)	16명 (40%)			
10	KNS	35명 (87.5%)	5명 (12.5%)	.827	1	.363
	TKL	32명 (80%)	8명 (20%)			
11	KNS	20명 (50%)	20명 (50%)	4.266	1	.039
	TKL	29명 (72.5%)	11명 (27.5%)			
12	KNS	20명 (50%)	20명 (50%)	1.270	1	.260
	TKL	15명 (37.5%)	25명 (62.5%)			
13	KNS	5명 (12.5%)	35명 (87.5%)	11.667	1	.001
	TKL	19명 (47.5%)	21명 (52.5%)			
14	KNS	38명 (95%)	2명 (5%)	1.409	1	.235
	TKL	35명 (87.5%)	5명 (12.5%)			

15	KNS	35명 (87.5%)	5명 (12.5%)	.000	1	1.000
	TKL	35명 (87.5%)	5명 (12.5%)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피동 선택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문항 1, 문항 5, 문항 7, 문항 11, 문항 13에서 유의 수준 .05보다 낮아 한국인 집단과 태국인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은 학교 선배에게 약속을 미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피동 표현 ‘-게 되다’를 써서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손함을 표시하는 상황이다. 한국인은 대부분 ‘출장을 가게 됐어요.’(90%)의 표현을 선호하였지만 태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출장을 가게 됐어요.’(52.5%) 표현이 한국인 모어 화자에 비해 선택 비율이 떨어졌고, 그 외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겠어요’와 같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47.5%)도 피동 표현과 비슷한 비율로 선택되었다.

문항 5는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본인인지 확인하는 상황이다. ‘되다’의 관용적 표현으로 학습자들이 격식적 상황에서 ‘○○○씨 되십니까?’의 표현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 모어 화자가 ‘김 대리님 되십니까?’(45%)의 표현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20%)보다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전체 응답 비율에서 두 집단 모두 피동 표현보다는 ‘김 대리님이십니까?’, ‘김 대리님 맞습니까?’와 같은 피동 이외 표현에 대한 선택 비율이 높았다.

문항 7은 병원에 전화하여 예약을 취소하고 스케줄 변경에 대해 예약 담당자와 상의하는 상황인데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스케줄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함을 나타내는 문항이다. 한국인은 압도적

으로 ‘내일은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82.5%)의 피동 표현을 선택했으나 태국인 집단은 피동 선택과 피동 이외의 선택 비율이 반반이었다. 즉,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내일은 다른 일정을 잡았어요’와 같이 화자 자신이 행위의 주체임을 드러내는 표현을 한국인보다 더 선호함을 이 문항에서도 알 수 있었다. 이는 태국어에서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황 맥락에서 두 문장이 가진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판단하여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 11은 친구에게 자신이 소개한 영어 통역 아르바이트생이 약속한 날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역시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음으로써 피동 표현이 공손 표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sup>6)</sup> 이 문항에서 한국인은 ‘미안하게 됐어.’(50%)의 피동 표현 선택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27.5%)보다 높았다.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미안하게 됐어’와 같은 표현은 오히려 공손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응답 이유에서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항 13은 단골 손님에게 구매한 상품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한국인은 손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전략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니다.’(87.5%)와 같이 상황 중심적 표현을 선호한 반면, 태국인은 행위 주체가 강조되는 ‘돈을 아직 입금하지 않으셨습니다.’(47.5%) 등의 결과적으로 손님을 부

6) 유혜령(2010:398)에서는 피동 표현을 쓰게 되면 화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술어가 표시하는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며 피동 표현이 공손 표지로 사용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2) ㄱ. 참, 저번 약혼식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ㄴ. 어머니 떠나시기 전에 도착하도록 할게요.

(12 ㄱ)의 “죄송하게 됐습니다.”가 “죄송합니다.”보다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정적으로 언급해 버리는 표현에 대한 선택 비율이 피동 표현과 비슷하게 높았다. 이에 대한 더 세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 IV. 화용적 전략에 따른 피동 표현에 대한 이해

연구 문제 2. 태국인 중·고급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화자의 피동 표현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화용적 전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 2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본고에서는 피동에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의 분류를 기초로 하여 피동의 화용적 전략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전략
2.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
3.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
4.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전략
5.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대방과 거리를 만드는 전략

각 전략별로 배치된 문항들을 함께 비교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식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전략<sup>7)</sup>

이 전략은 위계질서가 강한 상황이나 자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피행위자나 상황에 상대방의 초점을 돌림으로써 화자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부담감을 줄여 주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여 청자가 화자에게 가질 수 있는 반감을 최소화함으로써 청자를 배려하는 원리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전략을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치된 설문 문항은 1, 4, 7, 11번으로 화자는 청자에게 갑작스럽게 약속 변경을 하거나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설정되었다(각 문항별 상황은 <표 2> 참조). 피동 표현은 ‘-게 되다’, 피동파생접사 ‘이, 히, 리, 기’로 구성되었다.

피동의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전략’에 배치된 문항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KNS)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TKL)의 응답 비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7)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전략’이 공손 전략이라기보다 오히려 화자의 단순 핑계로서 회피 전략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본고의 상황 1에서 학교 선배에게 출장 때문에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화자의 단순 핑계일지라도 ‘출장을 가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가 훨씬 공손한 태도로 느껴진다. 이는 이 전략에 배치된 피동 표현 ‘-게 되다’가 자신의 의지와 달리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 상황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6) 가. 이번엔 제가 가게 되었어요.

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일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서형, 2014:59에서 인용)

김서형(2014:59-60)에서는 예문 (6가, 나)에 대해 ‘-게 되다’의 피동성을 빌어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서형(2014)외에 ‘-게 되다’를 공손 표현으로 보는 견해는 이해영(1996), 구현정(200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표 4>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전략’에 대한 응답 결과 8)

문항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chi^2$	자유도	유의확률 (p)
		①	②	③	④			
1	KNS	3명 (7.5%)	36명 (90%)	1명 (2.5%)	0명 (0%)	15.892	3	.001
	TKL	5명 (12.5%)	21명 (52.5%)	8명 (20%)	6명 (15%)			
4	KNS	2명 (5%)	14명 (35%)	23명 (57.5%)	1명 (2.5%)	5.827	3	.120
	TKL	5명 (12.5%)	11명 (27.5%)	18명 (45%)	6명 (15%)			
7	KNS	34명 (85%)	2명 (5%)	2명 (5%)	2명 (5%)	14.249	3	.003
	TKL	20명 (50%)	14명 (35%)	5명 (12.5%)	1명 (2.5%)			
11	KNS	3명 (7.5%)	17명 (42.5%)	20명 (50%)	0명 (0%)	11.137	3	.011
	TKL	0명 (0%)	25명 (62.5%)	11명 (27.5%)	4명 (10%)			

문항 1( $\chi^2 = 15.892, p = .001$ ), 문항 7( $\chi^2 = 14.249, p = .003$ ), 문항 11( $\chi^2 = 11.137, p = .011$ ) 각각의 상황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 $\alpha = .05$ )보다 낮으므로 한국인과 태국인이 선택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과 7은 앞서 연구 문제 1에서도 분석한 바,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압도적으로 피동 표현이 들어간 표현을 선택하여 약속 또는 스케줄을 변경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청자를 배려하는 표현을 선호하였다.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도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 비해서는 응답 비율이 떨어지지만 피동 표현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문항 1의 ①‘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

8) 각 문항별 보기①~④번의 내용은 부록 참조.

요.’, ③ ‘제가 회사에서 출장을 가겠습니다.’, 문항 7의 ② ‘내일은 다른 일정을 잡았어요.’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어 자칫 청자에게 청자와 한 약속보다 화자 자신의 일정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는 경우가 한국인 모어 화자들보다 많음을 볼 수 있었다.

문항 11의 경우는 보기 ② ‘미안해’와 ③ ‘미안하게 됐어’의 사과 표현의 차이를 두고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어느 표현을 더 공손하게 인식하고 선호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한국인은 근소한 차이로 ③ ‘미안하게 됐어’를 선택하였고, 태국인 학습자는 큰 차이로 ② ‘미안해’를 선택하였다. 태국인 학습자는 ‘미안하게 됐어’는 사과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으로 핑계로 들릴 수 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태국인 학습자들은 약속을 갑자기 변경해야 하거나 사과를 해야 하는 화자의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전략이 청자를 배려한다는 인식보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에 비해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동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피동 표현이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음으로써 청자를 배려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선택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쓴 응답 이유를 살펴보고, 이들 응답 이유를 각각 화용전략 인식, 의미기능 인식, 좋다/적당하다, 그외 기타 4가지로 분류하였다. 화용전략 인식으로 분류된 이유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가 아님’, ‘공손함’, ‘정중함/예의바름’을 언급한 것이었고, 의미기능 인식으로 분류된 이유들은 피동 형식만을 인지하고 있거나 피동의 객관적 정보 전달 기능, 전체적인 상황 설명 등으로 언급한 경우였다. 그리고 단순히 가장 자연스럽다, 좋다, 적당한 것 같다고 쓴 경우와 그 외 다른 문법 표현들을 언급한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5>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전략’에 대한 학습자 인식

문항	화용전략 인식	화용전략 인식 이외		
		의미 기능 인식	좋다/적당하다	그 외 기타
1	9명 (22.5%)	11명 (27.5%)	1명 (2.5%)	1명 (2.5%)
4	3명 (7.5%)	3명 (7.5%)	3명 (7.5%)	9명 (22.5%)
7	10명 (25%)	2명 (5%)	1명 (2.5%)	9명 (22.5%)
11	4명 (10%)	3명 (7.5%)	3명 (7.5%)	1명 (2.5%)

피동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들도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기’라는 화용적 전략에 대해 인식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문항 4와 7에서는 기타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학습자들은 문법적인 접근으로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가령 ‘왜 공부 시간을 바꿔야 하는지 문장의 끝에서’-거든요’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일본어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이유를 알려줬어요’, ‘잡히다’+‘-아/어서’결합했으므로 피동 표현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즉, 학습자들은 ‘게 되다’나 피동 동사와 같은 피동 표현을 고려하기보다는 이유 설명의 문법인 ‘-거든요’나 ‘-아/어서’에 더 영향을 받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2.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

이 전략은 화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겸손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을 잘 인식하고 선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치된 설문 문항은 2, 10, 15번으로 청자에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는 상황, 칭찬에 대해 답변하는 상황 등으로 설정되었다(각 문항별 상황은 <표 2> 참조). 피동 표현은 피동 동사 ‘되다’와 통사적 피동인 ‘-어/아지다’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피동 표현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에 배치된 문항에 대한 한국인 모어화자(KNS)와 태국인 학습자(TKL)의 응답 비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이다.

<표 6>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에 대한 응답 결과<sup>9)</sup>

문항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chi^2$	자유도	유의확률 (p)
		①	②	③	④			
2	KNS	20명 (50%)	3명 (7.5%)	16명 (40%)	1명 (2.5%)	15.377	3	.002
	TKL	7명 (17.5%)	15명 (37.5%)	18명 (45%)	0명 (0%)			
10	KNS	9명 (22.5%)	6명 (15%)	24명 (60%)	1명 (2.5%)	1.907	3	.592
	TKL	6명 (15%)	8명 (20%)	23명 (57.5%)	3명 (7.5%)			
15	KNS	5명 (12.5%)	21명 (52.5%)	9명 (22.5%)	5명 (2.5%)	4.267	3	.234
	TKL	5명 (12.5%)	28명 (70%)	6명 (15%)	1명 (2.5%)			

문항 2( $\chi^2 = 15.377, p = .002$ )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수준( $\alpha = .05$ )보다 낮으므로 한국인과 태국인이 선택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는 친한 후배가 부탁한 일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리는 상황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어 화자들은 ① ‘이거 해결했어’(20%), ② ‘이거 해결됐어’(16%), ④ ‘적절한 답이 없음’(4%), ③ ‘이거 내가 해결해 줬다’(3%)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태국인

9) 각 문항별 보기①~④번의 내용은 부록 참조.

한국어 학습자들은 ②‘이거 해결됐어’(18%), ③‘이거 내가 해결해 줬다’(15%), ①‘이거 해결했어’(7%)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 2에서 한국인은 행위의 주체자로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자신이 선배이고 상대방이 친한 후배이기 때문에’라고 쓴 답변이 많았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은 비격식적 상황에서 자신이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굳이 겸손한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항 10과 15에서도 한국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능동적 표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태국인 학습자 집단에서는 화자가 본인을 문제 해결자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겸손의 표현으로 ②‘이거 해결됐어’(18%)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모어 화자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 ①‘이거 해결했어’(17.5%)가 가장 응답 비율이 낮았고 모어 화자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은 ③‘이거 내가 해결해 줬다’(15%)가 두 번째로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두 문장은 같은 능동문이지만 ‘해결해 줬다’는 상대방을 위해 내가 베풀었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모어 화자들은 ‘생색내기’ 표현이라고 하여 선택을 꺼렸다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 학습자들이 ‘이거 내가 해결해 줬다’를 더 선호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습자들의 응답 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대방을 도와 주기 때문에 ‘-아/어 주다’ 표현을 선택했다’, ‘직접적으로 애를 썼

10) 문항 10은 대학원 학과 스터디에서 박사 선배에게 요약이 잘 되었다는 칭찬을 들은 후 그에 대한 응답을 고르는 상황이었는데 ②‘책에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15%)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표현보다 ③ ‘책에 잘 나와 있어서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60%)와 같이 자신의 행위를 완곡하지만 드러내는 표현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문항 15는 학회 준비가 잘 되었다는 교수님의 칭찬에 대한 응답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역시 ① ‘필요하다고 느껴져서’(12.5%)라는 소극적인 표현보다 ② ‘필요하다고 느껴서 준비했습니다.’(52.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친한 후배에게 내가 선배로서 해결해 줬다고 말함'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피동 표현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 항목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태국인 학습자들의 피동 표현 선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피동 표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화용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에 대한 학습자 인식

문항	화용전략 인식	화용전략 인식 이외		
		의미 기능 인식	좋다/적당하다	그 외 기타
2	6명 (7.5%)	3명 (15%)	2명 (5%)	7명 (17.5%)
10	7명 (17.5%)	1명 (2.5%)	0명 (0%)	0명 (0%)
15	3명 (7.5%)	1명 (2.5%)	1명 (2.5%)	0명 (0%)

문항 2에서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외에 기타(17.5%), 의미기능 인식(15%), 화용전략 인식(7.5%), 좋다/적당하다(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화용전략을 인식하고 피동 표현을 선택한 것보다는 '일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이 끝났을 때 많이 쓰는 걸 들었다' 등 문장의 피동 형식만 인지하거나 '있'의 영향으로 상황의 완료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결됐어'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 3.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

이 전략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 청자가 받을 수 있는 체면 위협의 부담을 줄여 주고 대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자와의 충돌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청자 존중 전략이다. 이 전략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치된 설문 문항은 3, 6, 13번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질문하는 상황 등으로 설정되었다(각 문항별 상황은 <표 2> 참조). 피동 표현은 ‘되다’, ‘-어/아지다’로 구성되었다.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에 배치된 문항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KNS)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TKL)의 응답 비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에 대한 응답 결과<sup>11)</sup>

문항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chi^2$	자유도	유의확률 (p)
		①	②	③	④			
3	KNS	22명 (55%)	16명 (40%)	1명 (2.5%)	1명 (2.5%)	1.352	3	.717
	TKL	20명 (50%)	19명 (47.5%)	0명 (0%)	1명 (2.5%)			
6	KNS	1명 (2.5%)	26명 (65%)	4명 (10%)	9명 (22.5%)	6.701	3	.082
	TKL	7명 (17.5%)	20명 (50%)	7명 (17.5%)	6명 (15%)			
13	KNS	2명 (5%)	35명 (87.5%)	1명 (2.5%)	2명 (5%)	20.26	3	.000
	TKL	19명 (47.5%)	21명 (52.5%)	0명 (0%)	0명 (0%)			

문항 13( $\chi^2 = 20.262$ ,  $p = .000$ )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수준( $\alpha = .05$ )보다 낮으므로 한국인과 태국인이 선택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3은 단골 손님에게 구매한 상품 대금

11) 각 문항별 보기①~④번의 내용은 부록 참조.

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②‘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87.5%), ①‘돈을 아직 입금하지 않으셨습니다.’(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모어 화자들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추지 않음으로써 손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를 보였다. 태국인 학습자들도 ②‘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52.5%)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의 비슷한 비율로 ①‘돈을 아직 입금하지 않으셨습니다.’(47.5%)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어 화자의 응답 비율(5%)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한국어처럼 태국어에는 피동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를 단순히 화자나 청자가 처한 상황을 전달하는 기능으로만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즉, ‘돈을 아직 입금하지 않으셨습니다.’와 같이 능동문으로 써도 피동문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 문장의 선택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12)</sup> 이는 또한 학습자들의 다수의 응답 이유에서 ①‘돈을 아직 입금하지 않으셨습니다.’가 손님에게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존대선어말어미 ‘-(으)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도 학습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문법 표지에

12) 강해 사마와디(2011:53-54)에서는 태국어의 피동 표현에서 청자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화자 자신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기능이 없다고 하였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33) 나. 손님, 송금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33') 나. คุณค่ะ, เงินยังไม่เข้าบัญชีเลยคะ (2)คุณค่ะ เงินยังไม่ถูก/ถูก/ถูก/เข้าบัญชีเลยคะ)

(33')는 (33)을 태국어로 표현한 것인데 이 피동문은 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화자나 청자가 처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태국인들은 피동문을 단순히 상황을 전달하는 기능으로만 인지하고 이는 (33나)를 ‘คุณยังไม่โอนเงินเข้าบัญชีเลยคะ(당신은 아직 송금하지 않았습니다.)’인 능동문으로 써도 태국인들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피동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을 인식하고 선택하였는지 알아보았다.

<표 9>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에 대한 학습자 인식

문항	화용전략 인식	화용전략 인식 이외		
		의미 기능 인식	좋다/적당하다	그 외 기타
3	11명 (27.5%)	2명 (5%)	1명 (2.5%)	6명 (15%)
6	6명 (15%)	5명 (12.5%)	3명 (7.5%)	6명 (15%)
13	13명 (32.5%)	4명 (10%)	1명 (2.5%)	3명 (7.5%)

피동을 선택한 학습자들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음’에 대한 화용적 전략을 인식하고 선택하였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청자 존중의 화용전략에 대한 인식이 전체 응답 이유 비율에서 그다지 높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답변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문항 3에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발표팀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표현으로 ‘이 부분이 보충되면 좋겠습니다’를 ‘이 부분을 보충하면 좋겠습니다’보다 적절하다고 하며, 선택 이유에 대해 ‘보충하면 좋겠다는 너무 직설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혀 피동 표현이 청자를 배려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문항 6에서도 깨진 거울에 대해 후배들에게 물어보는 상황에서 ‘이거 왜 깨졌지’라는 피동 표현을 고른 이유를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누가 깨뜨렸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하는 등 피동 표현의 화용적 전략을 인지하고 있는 답변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이 청자의 체면과 가장 밀접한 관

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국어에서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รักษานามใจ/raksa namchai/’이다. 이는 한국어의 ‘(상대방의) 체면을 세우다’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 태국인들도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언어 행동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전략

이 전략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의 주장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면 자신과 상대방 간의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손성을 나타내면서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잘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치된 설문 문항은 8, 9, 12번으로 추천, 공지, 알림 등의 상황으로 설정되었다(각 문항별 상황은 <표 2> 참조). 피동 표현은 피동 동사 ‘되다, 당하다’와 피동파생접사 ‘이,히,리,기’로 구성되었다.

피동의 화용적 전략 중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에 배치된 문항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KNS)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TKL)의 응답 비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에 대한 응답 결과<sup>13)</sup>

문항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chi^2$	자유도	유의확률 (p)
		①	②	③	④			
8	KNS	1명 (2.5%)	8명 (20%)	28명 (70%)	3명 (7.5%)	2.167	3	.539
	TKL	4명 (10%)	9명 (22.5%)	24명 (60%)	3명 (7.5%)			
9	KNS	20명 (50%)	19명 (47.5%)	1명 (2.5%)	0명 (0%)	23.112	2	.000
	TKL	23명 (57.5%)	3명 (7.5%)	14명 (35%)	0명 (0%)			
12	KNS	7명 (17.5%)	14명 (35%)	18명 (45%)	1명 (2.5%)	5.653	3	.130
	TKL	9명 (22.5%)	5명 (12.5%)	25명 (62.5%)	1명 (2.5%)			

문항 9( $\chi^2 = 23.112, p = .000$ )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수준( $\alpha = .05$ )보다 낮으므로 한국인과 태국인이 선택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9는 화자가 동아리 회장으로서는 회원들에게 광고성 글의 조치에 대한 공지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학습자 모두 보기 ① ‘광고성 글이나 분위기를 해치는 글은 삭제하겠습니다’를 선택한 비율이 제일 높았다. 즉, 두 집단은 피동문보다 화자의 의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능동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문항 2에서 보았듯이 권력관계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고 친밀도가 있을 때 굳이 공손 표현을 선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집단 모두 화자가 동아리 회장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황 상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단호하고 강한 표현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높았던 응답을 보면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② ‘광고성 글이나 분위기를 해치는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

13) 각 문항별 보기 ①~④번의 내용은 부록 참조.

다.’(47.5%)였음에 반해 태국인 학습자 집단에서는 같은 피동 동사지만 청자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훨씬 강한 ③‘광고성 글이나 분위기를 해치는 글은 삭제당할 것입니다.’를 선택하였다. 한국어에서 피동 동사 ‘당하다’에 의한 피동 표현은 문장의 주어 또는 행위의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영향을 받았음’을 기본 의미로 하기 때문에 청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다. 이는 태국어 피동 표현 중 ‘당하다’는 있지만 ‘되다’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삭제되다’를 쓰지 않고 ‘삭제당하다’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국어로 번역하여 답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와 태국어 표현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처럼 ‘삭제되다’를 선택하지 않았고 ‘삭제당하다’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sup>14)</sup>

피동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피동 표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는지 학습자 응답 이유를 통해 알아본 화용전략 인식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14) 강해 사마와디(2011:33)에서는 한국어의 피동문의 관계와 태국어의 피동문의 관계를 서로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한국어의 피동문의 관계	태국어의 피동문의 관계		
형태	타동사 어간+	‘-이-, -히-, -리-, -기-’	없음	+동사	
		‘어지다’	없음		
		‘-게 되다’	없음		
	타동성 명사+	되다	없음		
		받다	ได้รับ /daj rap/		
	당하다	ถูก/thu:k/, โดน/do:n/			

<표 11>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에 대한 학습자 인식

문항	화용전략 인식	화용전략 인식 이외		
		의미 기능 인식	좋다/적당하다	그 외 기타
8	4명 (10%)	0명 (0%)	1명 (2.5%)	4명 (10%)
9	0명 (0%)	0명 (0%)	2명 (5%)	1명 (2.5%)
12	11명 (27.5%)	0명 (0%)	6명 (15%)	7명 (17.5%)

문항 8과 12는 문항 9와 달리 화자가 아래사람으로 청자인 윗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상황으로 설정되었다. 문항 8에서 화자는 학과 조교로서 교수님께 통역할 학생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두 집단 모두 ② ‘김영수가 적임자로 생각됩니다.’보다 ③ ‘김영수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동 표현을 높은 비율로 선택한 반면, 문항 12에서는 회사원인 화자가 상사인 부장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상황에서 두 집단은 피동 표현이 들어간 ③ ‘프로젝트 진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먼저 두 문항의 상황의 격식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항 8은 교수의 개인적 부탁에 대한 의견 제시이지만 문항 12는 프로젝트 회의 중 발언이므로 화자의 부담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항 8은 교수가 원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문항 12는 상사의 의견에 반하여 자신의 생각을 개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청자를 배려하여 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선택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항 12에서는 학습자의 화용전략 인식도 높게 나왔는데 이는 피동 동사 ‘보이다’가 태국어 ‘เห็น /hen/’으로 대응하는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어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피동문 ‘프로젝트 진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

다.’를 태국어로 번역할 때 ‘มีความเห็น/ว/mi khwam hen wa/’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는 한국어의 ‘-것으로 보인다’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태국인들이 일종의 완화 표지로 친밀도가 낮고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 자주 쓰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응답 이유에서 ‘불만을 적게 하고 간접적으로 공손하게 말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은 이러한 모국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 5.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대방과 거리를 만드는 전략

‘○○○ 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와 같이 주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서로의 신상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화·청자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공손 전략으로 ‘되다’를 연결하여 표현한다.<sup>15)</sup> 이 전략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치된 설문 문항은 5, 14번으로 첫대면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동행인을 소개하는 상황이다(각 문항별 상황은 <표 2> 참조). 피동 표현은 피동 ‘되다’로 구성되었다.

---

15) 김선희(1996:19)에서는 피동성 표현 ‘되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3. (ㄱ) 실례지만, 사모님 되십니까?  
 (ㄴ) 제가 그애의 에미 되는 사람입니다.  
 (ㄷ) 교장 선생님 되십니까? 몰라봐어 죄송합니다.

(33ㄱ, ㄴ, ㄷ)은 낮선 사람과의 대면에서 주로 쓰이는 인사인데, 화·청자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공손 책략으로서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되다’를 연결하여 피동성 표현으로 나타낸다. ‘N-이다’에서 ‘이다’는 주어의 신분을 지정해서 가리킴에 비해서, ‘N-되다’에서의 ‘되다’는 피동성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주어의 신분표시를 피동적으로 표현하여 주관을 배제하고 있다. 이것은 낮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무례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한 책략으로 보인다 하겠다.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대방과 거리를 만드는 전략’에 배치된 문항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학습자의 응답 비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대방과 거리를 만드는 전략’에 대한 응답 결과<sup>16)</sup>

문항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chi^2$	자유도	유의확률 (p)
		①	②	③	④			
5	KNS	16명 (40%)	6명 (15%)	18명 (45%)	0명 (0%)	7.574	3	.056
	TKL	19명 (47.5%)	11명 (27.5%)	8명 (20%)	2명 (5%)			
14	KNS	20명 (50%)	18명 (45%)	2명 (5%)	0명 (0%)	8.883	3	.031
	TKL	8명 (20%)	26명 (55%)	5명 (12.5%)	1명 (2.5%)			

문항 14( $\chi^2 = 8.883, p = .031$ )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수준( $\alpha = .05$ )보다 낮으므로 한국인과 태국인이 선택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5는 거래처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담당자인지 확인하는 상황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KNS)들은 ③‘김 대리님 되십니까?’(45%)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소한 차이로 ①‘김 대리님이십니까?’(40%)를 두 번째로 선택하였다. 반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TKL)들의 응답은 ①‘김 대리님이십니까?’(47.5%), ②‘김 대리님 맞습니까?’(27.5%), ③‘김 대리님 되십니까?’(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국인 학습자들은 ‘명사+이다’ 문형을 인식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학습자들은 ‘친하지 않은 사이라면 공손하기 위해서 ‘시’를 써야 한다’고

16) 각 문항별 보기①~④번의 내용은 부록 참조.

응답하여 피동 표현 ‘되다’보다 존대선어말어미 ‘-(으)시-’를 공손함을 표시하는 표현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태국인 학습자 집단은 상황 맥락을 살펴 한국어의 여러 공손 표지들을 인식하여 선택하기보다 문법적인 장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문항 14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식당에서 선생님께 아버지를 소개하는 상황에서 태국인 학습자들은 ②‘저희 아버지입니다’(55%), ①‘저희 아버지세요’(20%), ③‘저희 아버지 되세요.’(12.5%)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문항 5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은 ‘명사+이다’ 문형, 존대선어말어미 ‘-(으)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응답은 ①‘저희 아버지세요.’(50%), ②‘저희 아버지입니다.’(45%), ③‘저희 아버지 되세요.’(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 14에서는 문항 5의 응답 경향과 달리 ‘되다’의 피동 표현을 써서 공손함을 표시하기보다 소개하는 대상자 주체를 높이거나 존칭을 생략하여 청자와 주체를 동등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모어 화자들이 밝힌 응답 이유를 통해서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과 아버지가 모두 높임의 대상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실례가 되지 않는 표현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요즘 절대경어적 용법이 많이 쓰이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7)</sup>

17) 성기철(1985)은 압존법을 ‘상위 청자 제약’으로 칭하고, 청자가 상위일 때 다른 이에 대한 경어를 쓰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혜경(1993), 김혜숙(1995)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최근의 사용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6. 형님께서 가신답니다.(가신다네요)(N2; 아버지 또는 어머니, N3; 나이든 형님 또는 손위 동서)
7.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신다는데요.(=김혜숙(3))
8. 할아버지, 아버지가(께서) 진지 잠수시라고 하셨습니다.
9. 이 부장이 그 계획안을 내셨습니다. (N2;사장)

다음 <표 13>은 ‘되다’의 피동 동사가 들어간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들이 청자에게 무례해 보이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전략을 인식하고 선택하였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표 13>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대방과 거리를 만드는 전략’에 대한 학습자 인식

문항	화용전략 인식	화용전략 인식 이외		
		의미 기능 인식	좋다/적당하다	그 외 기타
5	5명 (12.5%)	0명 (0%)	1명 (2.5%)	2명 (5%)
14	3명 (7.5%)	0명 (0%)	1명 (2.5%)	1명 (2.5%)

학습자 집단의 피동 표현에 대한 선택 비율은 낮은 편이었지만 피동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들은 ‘되다’의 공손 표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공손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의 전략으로서 사용되는 한국어 피동 표현에 대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 1에서는

---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신혜경(1993, 1996)은 요즈음은 화제의 인물에 대하여 존경표현을 하는 절대경어적 용법이 많이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간에도 절대경어가 쓰이므로 손자가 조부모 앞에서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 현재의 언어상황이라는 것이다. ‘절대경어’란 높여야 되는 대상을 듣는 이가 누구라도 높임표현을 써서 존경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김혜숙(1995)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과거에 비하여 요즈음은 전체적으로 높임의 단계가 낮아져가고 있고, 높임의 인물이면 그대로 알맞게 높여주는 단순화의 경향을 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누구와 누구의 관계성보다는 모두를 개개인으로 놓고 언어현상을 규정짓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김재민, 2004:139-140).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여 설정한 15개의 상황에서 두 집단 간 피동 표현과 피동 이외 표현의 선택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았다. 연구 문제 2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화자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피동 표현의 화용적 전략으로 보고 이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각 전략에 따라 학습자와 모어 화자 간 어떠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피동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피동 표현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하여 한국어 피동 표현이 가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인지도 더불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먼저 연구 문제 1에서 태국인 학습자 집단이 피동 표현의 공손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 문항 별로 피동 표현 선택과 비선택의 비율로 비교해 본 결과, 문항 1, 문항 5, 문항 7, 문항 11, 문항 13에서 한국인 집단과 태국인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어 화자에 비해 각 문항에서 피동 표현을 선택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한국어 피동 표현이 가지고 있는 공손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연구 문제 2에서 화용적 전략에 따라 학습자와 모어 화자 간 피동 표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화용적 전략 항목에서 피동 표현에 대한 학습자 집단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비교적 피동 표현의 선택 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1.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전략>, <2.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 <3.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학습자의 응답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1.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전략>, <2.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에서는 피동 표현을 선택한 비율은 높았지만 이러한 화용적 전략을 잘 인식하고 선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1과 2의 항목에 비해 <3.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에서는 학습자들이 ‘너무 직설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물어볼 수 없다'거나 '청자의 체면을 위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다'와 같이 피동 표현을 선택한 이유를 밝혀 피동 표현의 화용적 전략을 인지하고 있는 답변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이 청자의 체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략은 청자의 체면 위협의 부담을 줄여 주고 대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자와의 충돌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청자 존중 전략이다. 태국어는 한국어처럼 피동 표현을 통해 청자를 배려하는 의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태국어 표현 중 'รักษาหน้า/rakšana'/'<체면을 세우다>와 같은 표현이 있어 태국인들도 청자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언어 행동에는 민감한 의식이 있고 이런 경우 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4.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전략>과 <5.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대방과 거리를 만드는 전략> 항목에서는 학습자들의 피동 표현 선택 비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5.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대방과 거리를 만드는 전략>에서 태국인 학습자들은 '되다'의 공손 표현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피동성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문장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였다.<sup>18)</sup>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파생적 피동 교육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으나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적 피동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학습자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피동 표현에 대한 교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8) 문항 12의 경우, 예외적으로 태국인 학습자 집단에서 피동 동사 '보이다'가 들어간 표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태국어 'เห็น /hen'으로 대응하는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어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태국인 학습자 집단에서도 모국어와 대응되는 피동 표현의 경우에는 완화 표지로서 공손함을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문제 1과 2를 통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피동 표현의 화용적 전략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학습자들은 피동 주어의 정보 전달이라는 의미 기능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크고, 따라서 응답에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적인 설명, 다른 문법적인 장치나 모국어로 번역하여 선택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어에서 피동 표현도 여러 공손 표지의 하나로서 청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능이 있음을 학습자들은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였다. 학습자들은 문형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존재어말어미 ‘-(으)시.’가 있는 문장만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태국어의 피동 표현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고 어조나 말하는 태도를 조절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의도한 바를 전달하고자 하는 화용 전략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진(2002:78)에서 피동표현에 대한 복습이나 확장학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동 표현의 기능에 대한 교수 내용도 일부 교재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내용도 피동주어에 대한 정보 전달의 기능에만 국한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피동 표현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큰 문법이므로 여러 단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에게 보다 유용하고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동 표현의 화용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담화 맥락 안에서 피동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기영(2015). 일본인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피동 습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서형(2014). ‘-게 되다’의 의미 기능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7호, 53쪽~76쪽.
- 김선희(1996). 공손법의 원리와 실제.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 29집, 목원대학교 출판부, 5쪽~24쪽.
- 김진영(2011).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수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옥(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방안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강해 사마와디(2011). 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숙(2013). 한국어 단형피동문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화(2014). 한국어 공손 표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현애(2011). 한국어 피동 표현의 담화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2011).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피동표현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희(2002). 간접화행, 도서출판.
- 이현진(2002). 한국어 피동표현의 교수 내용 및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숙(2004). 한국어교육에서의 효율적인 피동 교수 방안 : 한·일 대조 분석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혜영(2004). 한국어 공손 표현의 의미.한국어 의미학, 15호, 71쪽~91쪽.
- 정수민(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과제 유형에 따른 피동 표현 습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주하(2011). 한국어 교육에서의 피동 표현 교육 방안 - 파생 피동에 의한 피동법을 중심으로.<한국문법교육학>, 2011(2), 43쪽~155쪽.
- Brown, P, & Levinson, S.C.(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R.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 or Mining Your P's and Q's. in Papers from the Ni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292-305).

Chicago : Chicago Linguistic Society

Leech. G. 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Leech. G. N.(2002), Language, culture and Politeness. Cogito: the journal of PNU  
humanities institute: 부산대학교 인문연구소, 58, 57-89.P

Locastro, V. (2012). Pragmatics for Language Education: Sociolinguistic perspective,  
Routledge

〈부록〉

1.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전략’의 설문지 문항 선택지

문항	설문지 문항 선택지
1	①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배요.
	②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배요.
	③제가 토요일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배요.
	④적절한 답이 없음.
4	①강습시간을 저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일본어 학원에 다녀요.
	②강습시간을 저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일본어 학원에 다니기로 했어요.
	③강습시간을 저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일본어 학원에 다니게 됐거든요.
	④적절한 답이 없음.
7	①내일은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다른 날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②내일은 벌써 다른 일정을 잡았어요. 다른 날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③내일은 못 가요. 다른 날로 바꿔 주실 수 없어요?
	④적절한 답이 없음.
11	①일이 잘못 돼서 어떡해.
	②일이 잘못 됐다니 미안해.
	③일이 잘못 됐다니 미안하게 됐어.
	④적절한 답이 없음.

2. ‘자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의 설문지 문항 선택지

문항	설문지 문항 선택지
2	①이거 해결했어.
	②이거 내가 해결해 줬다.
	③이거 해결됐어.
	④적절한 답이 없음.
10	①감사합니다. 책대로 잘 정리하려고 했어요.
	②감사합니다. 책에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③감사합니다. 책에 잘 나와 있어서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④적절한 답이 없음.
15	①아니예요. 그냥 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요.
	②아니예요. 그냥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준비했습니다.
	③아니예요. 그냥 좀 제가 느끼기에 필요해서 준비했습니다.
	④적절한 답이 없음.

3.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의 설문지 문항 선택지

문항	설문지 문항 선택지
3	①이 부분이 좀 더 보충되면 좋겠습니다.
	②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하면 좋겠습니다.
	③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하셔야겠어요.
	④적절한 답이 없음
6	①이거 왜 깬어?
	②이거 왜 깨졌지?
	③이거 누가 깨뜨렸니?
	④적절한 답이 없음
13	①손님, 돈을 아직 입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증으로 부탁드립니다.
	②손님, 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디다. 오늘 증으로 부탁드립니다.
	③손님, 오늘 증으로 돈을 입금해 주세요.
	④적절한 답이 없음.

4.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의 설문지 문항 선택지

문항	설문지 문항 선택지
8	①교수님, 김영수가 적임자입니다.
	②교수님, 김영수가 적임자로 생각됩니다.
	③교수님, 저는 김영수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④적절한 답이 없음.
9	①앞으로 광고성 글이나 동아리 분위기를 해치는 글은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②앞으로 광고성 글이나 동아리 분위기를 해치는 글은 바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③앞으로 광고성 글이나 동아리 분위기를 해치는 글은 바로 삭제당할 것입니다.
	④적절한 답이 없음
12	①부장님, 이 금액으로는 프로젝트 진행이 힘듭니다.
	②부장님, 이 금액으로는 프로젝트 진행이 힘들다고 봅니다.
	③부장님, 이 금액으로는 프로젝트 진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④적절한 답이 없음

5.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에 상대방과 거리를 만드는 전략’의 설문지 문항 선택지

문항	설문지 문항의 선택지
5	①실례지만, 김 대리님이십니까?
	②실례지만, 김 대리님 맞습니까?
	③실례지만, 김 대리님 되십니까?
	④적절한 답이 없음.
14	①선생님, 저희 아버지세요.
	②선생님, 저희 아버지입니다.
	③선생님, 저희 아버지 되세요.
	④적절한 답이 없음.

김성은 (Kim Sungeun)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교 강사  
 (181-8585)東京都三鷹市大澤3-10-2  
 전화번호: 02-404-1458  
 전자우편: happydew77@gmail.com

강혜 사마와디 (Kunghae Samawadee)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송클라대학교 강사  
 181 Chareonpradit Road, Rusamilae, Muang, Pattani 94000, Thailand  
 전화번호: +66-75-640037  
 전자우편: songkla90000@naver.com

접수일자: 2016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5월 31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15일